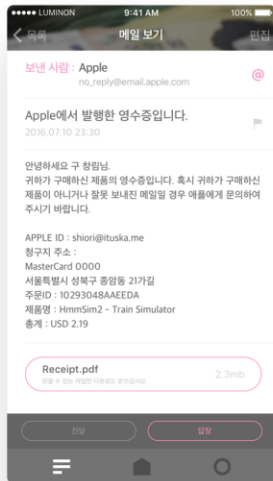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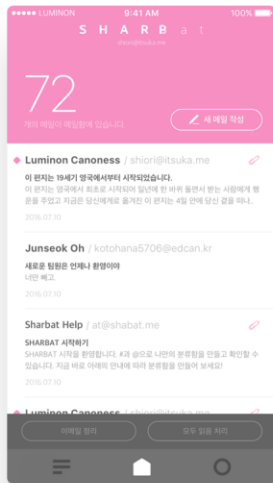


S H A R B a t

#과 @으로 내 메일들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 이제까지의 메일 앱은 여기까지 지원합니다.

내 메일을 열고, 빠르게 메일을 확인하고, 관리하고, 모두 읽고, 첨부파일을 내려받고.

다른 메일들이 지원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입니다. 샤벳은 이것들을 깔끔하게 정돈하여 더욱 더 보기 쉽고 깔끔하게 표시합니다.

모든 메일을 확인하고 자세히 훑어보고 속 시원하게 모두 읽을 처리하기까지 모든 기능들이 서로서로 연결되고 그것들을 유연하고 빠르게 처리합니다.

샤벳은 단순히 메일을 받고 보여주는 것을 넘어 원하는대로 분류해 줍니다.

#과 @, 그리고 '/'으로 나만의 분류함을 만들어 보시다. 모든 메일들은 각각의 분류함에 정해진 태그대로, 분류하게 분류될 것입니다. 앱스토어나 소프웨어에서 온 결제 확인 메일, 게임을 실행할 때 온 보안 메일, 회사와 회사간의 거래 메일 등 다양한 테마의 분류함을 만들어 보세요!

해당되는 키워드

적은 키워드가 포함된 메일들을 분류해 줍니다.

@ 해당되는 사람

태그한 사람들이 보낸 메일들을 분류해 줍니다.

/ 특수한 메일

첨부파일이 포함된 메일, 답장 메일 등 특수한 메일들을 분류해 줍니다.

#@ 섞어 쓸 수 있습니다!

분류함을 만들 때 위의 태그들을 서로 섞어서 더욱 자세하고 상세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기본을 중시하는 메일 보기

메일을 본다는것은 심플한 동작이지만 그 하나하나가 정밀한 행위입니다. 보낸이의 이름부터 메일, 제목, 보낸날짜, 내용, 첨부파일까지 전부 세밀하고 상세하게 사용자의 편리한 사용을 위해 계산되고 구성되었습니다. 메일을 보는 것 뿐만 아니라 플래그를 세워 메일을 빠르게 분류할 수 있고 '@' 버튼을 눌러 이 사람을 포함하는 분류함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죠. 첨부파일을 표시만 해도 꼭꼭 숨겨두는 몇몇 앱과 달리 샤벳은 크고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거래 성사 문서일수도 있고, 합격통지서일수도 있으니까요.

플래그 세우기

플래그를 세운 메일 분류함에 자동으로 추가해 줍니다. 따로 분류함을 만드는 번거로움 없이 필요한 메일만 모아 체크할 수 있습니다.

@ 빠르게 분류함 만들기

메일을 보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태그한 분류함을 빠르게 만들어 보세요. 보낸 사람 옆에 있는 핑크색 @ 버튼을 통해 바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삶을 바꿀 메일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벳은 메일을 보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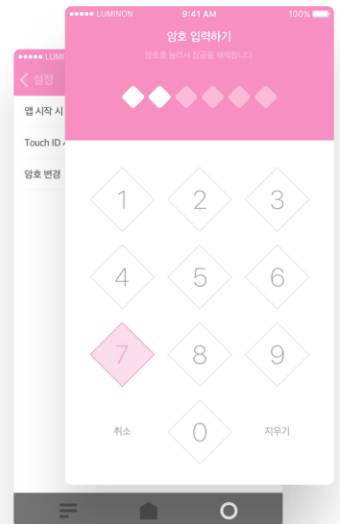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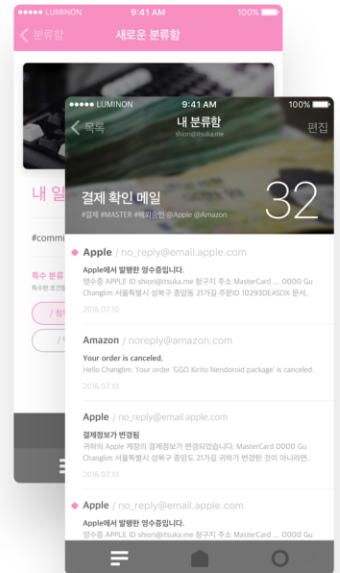
중요한 기밀 문서부터 성적표까지 중요한 사안들이 메일로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 메일들은 다른 사람이 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00만개 이상의 암호를 만들 수 있는 6자리 비밀번호, TouchID 등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을 탑재하였습니다.

6 여섯자리 비밀번호

만들 수 있는 조합의 수가 만개밖에 되지 않는 4자리 비밀번호와 달리 조합 수가 100만가지에 달하는 여섯자리 비밀번호를 통해 비밀번호 그 자체의 수준을 높였습니다.

Touch ID

iPhone의 강력하면서도 가장 편리한 지문인식 솔루션인 'TouchID'로도 샤벳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저희의 창의와 도전 또한 이 메일에 담겨 보내집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메일, 친구들의 메일 사이에서 몇달간 밤을 지새운 선린인들의 열정 또한 메일로 보내지죠. 이것들을 샤벳으로 분류하고 모아서 더욱 집중해서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것입니다.

Re:모콘

Re: Nonsleep in a different world from mocon

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밤샘

팀 Re : 모콘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밤샘

Team The 'Re : Nonsleep in a different world from mocon'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모콘'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창의와 능력을 쏟아붓고 있죠. 팀의 이름 또한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팀을 구성하는 친구들도 각자 자신의 파트에서 열심히 밤샘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연락이 끊겨버리지만 앱 자체는 가장 앞서 개발하고 있는 iOS 개발자, 다른 팀 개발을 끝내고 바로 개발을 시작해 몇일을 밤새고 있는 안드로이드 개발자, 폭풍같은 디자인을 선사하는 다크호스인 안드로이드 디자이너, 그리고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기획자 겸 iOS 디자이너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앱 소개와 같은 분량으로 팀을 소개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저희 팀은 모콘 마감 '일주일'전에 결성되었습니다. 본래 iOS만 개발하려 했지만 팀원을 더 모아 Android까지 총 2개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죠. 게다가 모콘 단 하나만의 목표로 하루만에 기획과 iOS 디자인을 끝내고, 5일만에 Android 디자인이 끝나고, 일주일만에 모든 개발이 끝나고 있죠. SHARBat은 이렇게 집념높은 사람들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준우

iOS Application Developer

구창림

Planner / iOS Application Designer [Lead design]



오준석

Android Application Developer

김태운

Android Application Designer

